

조시치야치 패총

조시치야치 패총은 기원전 6,000 년경의 유적으로, 알려진 일본 북부의 패총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. 이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 연안 지역에 형성된 초기 마을의 식생활과 생활상, 그리고 선사 시대 일본인들의 삶의 모습을 만든 환경적 요인 등에 관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.

해수면과 해안선

이 유적은 해안에서 수 km 떨어진 고노해강의 범람원이 내려다보이는 구릉지에 있습니다. 약 1 만 년 전 마지막 빙기(氷期)가 끝난 후, 기온이 점점 따뜻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8,000 년 전에는 해안선이 내륙 방향으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채취하기에 이상적인 얕은 만과 넓은 갯벌이 생겨났고, 만이 내려다보이는 자리에 이 조시치야치 패총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식재료와 생활

이 유적에서 발견된 뼈로 만든 조립식 낚싯바늘, 작살 끝, 어망에 다는 석제 그물추 등 다양한 고기잡이 도구 등은 이곳에 풍요로운 어로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. 발굴 조사 결과, 약 30 종의 조개류와 약 20 종의 물고기 뼈 외에 조류와 포유류의 뼈도 출토되었습니다.

하치노헤시 박물관

조시치야치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은 선사 시대부터 근대까지 하치노헤의 역사를 소개하는 하치노헤시 박물관[링크]에 전시되어 있습니다. 관람 시에는 입장료가 발생합니다. 일부는 영어로도 정보를 제공합니다.

관련 유적

이 외에 일본 북부에서 패총이 발견된 유적으로는 기타코가네 패총[링크](홋카이도), 이리에 패총[링크](홋카이도), 다카사고 패총[링크](홋카이도), 다고야노 패총[링크](아오모리현), 후타쓰모리 패총[링크](아오모리현) 등이 있습니다.